

산타클로스의 원조, 성 니콜라오

정은진

다양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그림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지난 호에 언급했듯이) 머리에 황금색 광배가 있는 인물이다. 화면의 왼쪽부터 살펴보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아기에게 광배가 있다. 오른쪽으로 조금씩 시선을 옮겨보면 이 아기가 성장하면서 일어난 일화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는데, 이 아기가 바로 니콜라오 성인이다. 니콜라오는 그리스어로 '사람들 가운데 승리한'이라는 뜻이다.

성 니콜라오(Nicolaus de Myrae, 270?–341경)

성인은 3세기 후반, 지금은 터키에 속하는 리키아의 파타라라는 지역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다. 평신도였던 그는 신자들과 사제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리키아의 작은 항구도시 미라의 주교로 선출되었다. 이후 니콜라오는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자신의 관구를 자애와 헌신, 엄격한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라 보살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동안에는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석방되었다. 또, 325년 아리우스 이단을 단죄한 니케아 공의회에도 참석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2월 6일에 세상을 떠났기에 이날을 축일로 기념하고 있다. 6세기경 비잔틴에서 성인을 공경하기 시작하여 전 서방 교회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1087년에는 그의 유해를 바리(Bari)로 이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곳이 유럽 최대의 순례지가 되기도 하였다.

리키아 연안의 뱃사람들을 극적으로 구출했던 니콜라오 성인은 폭풍우에 갇힌 뱃사람들의 수호자로 공경을 받고 있으며, 죄수들과 어린이, 또 러시아의 수호성인이기도 하다.



▲프라 안젤리코 <성 니콜라오 이야기> 1437년 경, 나무에 템페라, 34x60cm, 피나코테카, 바티칸

성 니콜라오는 네덜란드에서는 ‘신터 클레스(Sinter Claes)’, 영어권에서는 ‘산타 클로스(Santa Claus)’로 불렸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니콜라오 성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린이들은 니콜라오 축일에 선물을 받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날이 성인을 기리는 축일(12월 6일)에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12월 25일)로 바뀌면서, 성인의 모습은 희미해져 버렸다. 서양 미술에 나타난 성인은 주교복을 입고, 주교 지팡이와 책을 들고 있다. 주요 상징물로는 세 개의 황금 구슬, 욕조 안의 세 아이들, 빵, 닛, 배 등이다.

회화의 성인,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87-1455)

도미니코 수도회 수사이며 화가였던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이 작품은 니콜라오에 대한 전설을 일련의 아름다운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프라 안젤리코의 원래 이름은 귀도 디 피에트로(Guido di Pietro)로 영적으로 충만한 회화의 성인으로 불린다. ‘천사와 같은 수도자’라는 그의 애칭만 봐도 그가 얼마나 널리 사랑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원래 페루지아의 산 도미니코 성당에 있는 제단화 프레텔라(여러 장의 패널로 이루어진 대형 제단화의 아래쪽 받침 부분을 가리킴·편집자 주)의 일부분이다. 이제 그림 속으

로 들어가 보자.

이 그림은 세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우선 화면 왼쪽 실내 풍경에는 갓 태어난 니콜라오 성인이 있다. 성인은 매우 조숙하여 유모가 목욕을 시키려 하자 자기 발로 직접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기지도 못하는 아기가 벌떡 일어서서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운데, 집 밖의 풍경에는 어린 니콜라오가 군중들 틈에 서서 주교의 열정적인 연설을 듣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주교는 그의 삼촌이며,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 주교가 되기를 결심했다고 한다. 맨 오른쪽에는 잠든 세 자매와 근심에 잠긴 아버지, 그리고 또 창문으로 손을 뻗어 무엇인가를 넣어 주는 니콜라오 성인이 있다. 이 장면은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지 못해 매부로 끌려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세 자매에게 창문으로 돈 주머니를 몰래 던져 주어 모두 결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로 그의 행적 가운데 가장 알려진 일화를 그린 것이다. 북유럽에서는 니콜라오 성인의 축일이면 과일에 동전을 꽂아 선물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는 이 세 자매의 일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한다.

프라 안젤리코는 원래 성경과 기도서를 그리는 필사본 삽화가였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밝고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필치가 넘쳐난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구성과 구도가 탁월한데, 원근법을 사용해 실내와 실외 풍경을 하나로 엮어낸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즉 내용상으로는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니콜라오 성인의 탄생 직후부터 유년기와 청년기에 이르는 성장 일화를 그리고 있지만, 구성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마치 한 공간과 시간에 있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니콜라오 성인은 아이들에게 늘 과자를 나누어 주었고, 한 중에 아이들의 신발이나 양말에 몰래 선물을 넣어 놓고 갔다고 한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성인의 마음을 성탄을 보내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

**좀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성인 그림을 찾아 정리하는 시간은 필자인 저에게 참 고마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талан트를 나누어 주는 일이니까요. 올 한해 부족한 제 글에 많은 관심 보여 주신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기쁜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은진·폴리나
문학박사, 미술사가, 현재 이화여대 강사. 저서로는 『기쁨을 전하는 그림』(2003, 가톨릭출판사), 역서로는 『베네치아 미술』(2003, 시공사), 『미켈란젤로』(2006, 마로니 에북스), 『신약성서 명화를 만나다』(2006, 예경) 등이 있다.